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7년 4월 둘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기능성 심사규정·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코스모닝]

모바일, 화장품 쇼핑 대세로 '성큼성큼' [뷰티누리]

중소기업 수출, 中 의존도...화장품 37%, 의류 21%, 생활용품 19% [연합뉴스]

〈해외화장품시장동향〉

인도네시아, 화장품 원료 수입관세 감면대상에 포함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협회 업무추진현황 19

행사 소식 26

회원사 뉴스 31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기능성 심사규정·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7.3.30)

- 오는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화장품법 제 2조 제 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식약처 공고 제 2017-138호)의 주요 내용은 △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 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 시험자료만 인정 △ 염모제의 경우 모발색상 변화를 확인하는 염모효력 시험자료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준과 시험방법 자료 요건의 명확화 등임

- 관련링크:

<http://cosmornorning.com/기능성-심사규정-안전기준-개정안-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이라도 의약품 원료 사용은 금지('17.3.23)

- 기능성화장품 영역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5월부터 영역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 기준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음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2475&flag=h

기능성 화장품 확대, '체크 또 체크' ('17.3.19)

-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품에서 전환되는 품목과 신설되는 품목의 절차, 정비, 심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개최, 화장품법 개정 내용·의약품에서 기능성 화장품 전환 절차·심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음
- 화장품법에 의거한 기능성 화장품은 종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외에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갈질환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추가됐음

- 관련링크:

<http://cosmornorning.com/기능성-화장품-확대-체크-또-체크/>

중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17.3.6)

- 최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이하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음

-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이하 '질검총국')에 의해 공고됐음

- 관련링크:

<http://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1>

화장품업계 '3중고'...내수부진·관광상권·면세채널 실종('17.3.10)

- 화장품업계가 내수부진, 관광상권 실종, 면세채널 성장 제동이라는 3중고에 빠졌음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로 오는 15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본격적으로 끊어지면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7304>

'포스트 차이나' 해법 제시하는 토종 B2B 전시회('17.3.23)

-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B2B 전문전시회, 'CI Korea 2017'(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이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됨
- 전세계 K-뷰티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원료, 위수탁, 용기 등 화장품 후방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업계에 알려 우수 화장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된 CI Korea 전시회는 경연전람이 주최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글로

벌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이 후원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375/cat/10/>

식약처·협회, 17일 화장품정책 설명회('17.3.1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 화장품정책과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장품의 중국 수출절차 등 규정을 설명하는 한편 사용한도·사용금지 원료 포털 구축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식약처·협회-17일-화장품정책-설명회/>

한 눈에 보는 올해 화장품 정책 방향('17.3.30)

-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가 지난 2015년 10조원을 돌파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점유율이 약 2.9%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한-눈에-보는-화장품-정책-제도/>

무성했던 ‘사드보복’, 中 현지서 확인 (’17.3.13)

- 한·중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체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임
- 3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46회 중국 국제미용박람회’는 소문만 무성했던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사드보복뷰티업계-현실되나/>

"홍콩·일본 인기처럼 한류 소멸할지 모른다" "...화장품업계 불안"(’17.3.14)

- 14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대(對)중국 소비재 수출액은 전체 소비재 수출액 662억달러의 11% 가량인 70억2천만달러로 집계됐음
-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한류를 기반으로 중국 수출이 활성화돼있지만, 중국 정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혐한의 기류가 대중에게까지 퍼져 한류의 소멸을 가져오면 어찌 될까 걱정된다"며 "과거 뜨거웠던 일본과 홍콩의 인기가 어느 순간 사그라든 것처럼 사드 문제 때문에 한류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062500030.HTML?input=1195m>

“화장품 로드샵 매출 4분의 1로 확 줄었어 요”(’17.3.15)

- 중국 정부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15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늘 유커(游客·중국인 단체관광객)로 붐볐지만 한산했음

- 마스크팩으로 유명하다는 한 화장품가게가 11시부터 20분 동안 받은 손님은 겨우 일본인 관광객 2명. 주인 이모(45)씨는 ‘매출 타격을 체감하냐’는 물음에 “한번 보세요, 손님이 있냐” 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중국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매출이 4분의 1로 줄었다.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된) 지금부터 말 그대로 생존전쟁”이라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www.hankookilbo.com/v/12f78cb078f8441997a62c4dd6db365e>

‘사드’ 악재 中시장, ‘철저한 통관 준비’부터 (’17.3.1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변화된 중국 수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중국 청둥지사 임향식 지원은 “인허가 과정 중 고의적 기간 지연은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는 전체적인 인허가 제품에 대한 자료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현재의 정세가 맞물려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악재-속-中시장-철저한-통관-준비가-답/>

[긴급 점검] 사드 직격탄... 각계 현황과 대응(’17.3.16)

- 중국 정부는 이달 초 한국행 여행상품의 판매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15일부터 한국

으로 가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관광, 크루즈 여행이 전면 중단됐음

-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K-코스메틱의 선두주자로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숍 업체들은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281/cat/10>

중소기업 수출, 中 의존도…화장품 37%, 의류 21%, 생활용품 19%('17.3.30)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중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국가 등 신흥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0AKR20170311062300030.HTML?input=1195m>

화장품 원료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17.3.30)

- 동물대체시험법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동물 시험이 금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은 최근 이 같은 사업계획과 관련한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입찰참가자 공모에 들어갔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화장품-원료안전성-예측-시스템-구축/>

모바일, 화장품 쇼핑 대세로 '성큼성큼'('17.3.30)

-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조19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3조4907억원으로 28.4% 증가했음
-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에서 화장품은 주목할 만한 품목으로 부상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증감률에서 화장품은 전년 동월 대비 24.6%의 증가률로 음·식료품(34.7%), 가방(34.1%),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28.6%) 등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됐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256/cat/10/>

지난해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 1조8천억원…3년새 5배로 늘어('17.3.16)

- 한류 바람으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3년 사이 대(對) 중국 화장품 수출액이 5배로 늘어났음
- 중국 시장이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40%로 높아졌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0AKR20170315192000030.HTML?input=1195m>

사드 보복에 수치화 된 '손실'...면세점·화장품·관광업계 매출 뚝('17.3.22)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 조치로 면세점·화장품·관광 업계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음
-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30%씩 줄고 있는 가운데 경제제재 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가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4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관련링크:

<http://news.tf.co.kr/read/economy/1682946.htm>

세계 화장품 과학자 한국에 모인다('17.3.30)

- 세계 '화장품 과학자'들이 오는 10월 한국에 옴
- 'Cosmetic Science:Beauty, Convergence & Creativity'를 주제로 제24차 세계화장품 학회(IFSCC 2017 Seoul)가 오는 10월 23~25일 3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림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306/cat/10>

'립스틱 효과' 색조화장품 판매 증가...대용량 제품도 인기('17.3.26)

- 경제 불황의 여파로 립스틱, 술, 담배 등 이른바 '불황형 소비품목' 매출이 늘고 있으며, 또 대용량 제품이나 중고 제품 등을 구매하는 실용적 소비 성향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음

- 26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G마켓의 색조 화장품 판매는 전년보다 34% 늘었음

- 관련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947&ref=A>

주요 화장품기업 37社 2016년 경영실적 분석('17.3.27)

- 3월 25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2016년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국내 주요 화장품기업 37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의 특징은 △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12곳·1천억 원 이상 8곳·500억원 이상 7곳 △ 상위 12사의 매출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1천~2천억 원 미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 기록 △ 20위권 내 상위사들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지표가 매출 500억원 대 이하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본지가 분석한 주요 화장품 기업 37사의 2016년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분석대상 37곳의 기업 가운데 4곳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최고 95.5%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한 더샘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나머지 33곳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시장불안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을 일궈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주요-화장품기업-37社-2016년-경영실적-분석/>

[상장사 실적분석] 4분기 100원 팔기 위해 50원 썼다('17.3.27)

- 지난해 4분기 국내 화장품 관련 상장사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883억원, 연간 누적(1월~12월) 평균은 2933억원을 기록했음
- 뷰티누리(화장품신문)닷컴과 약업닷컴이 27개 화장품 상장사(코스피 10개사/코스닥 17개사)의 4분기 및 연간 누적 판매관리비(연결 기준)를 분석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431/cat/10>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 1~2월에 52% 늘었다('17.3.29)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지난 1~2월 여전히 성장세를 보였음
- 29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4억500만 달러(4천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82.8% 늘었고 1월 수출은 3억 달러(약 3천300억원)로 26.0% 증가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7/0200000000AKR20170327169200030.HTML?input=1195m>

미국 바이어 10명 중 8명 “한국 화장품 수입할 것”('17.3.28)

- K-코스메틱이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뷰티 제품 바이어 중 80% 이상이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지난 3월 12~13일 뉴욕에서 개최된 뷰티쇼(International Beauty Show)에서 무역협회 홍보 부스를 방문한 미국 바이어 10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뷰티 제품(기초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미용기기 등)에 대한 인식 및 경쟁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6448/cat/10>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화장품 원료 수입관세 감면대상에 포함

- 2017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 감면 대상(BMDTP)에 화장품 원료 포함 -
- 인도네시아 화장품 업계, 다국적 기업에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려 -
-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기업, 현지 기업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필요 -



자료원: pixabay

□ 개요

- 2017년 1월 4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제조업 부문 수입 관세 감면(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이하 BMDTP)에 5961억 루피아(약 4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발표함. 이는 2016년보다 171억 루피아(약 130만 달러) 증가한 금액임.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는 제조업 25개 부문 가운데 화장품이 신규 포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 규모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 조달하는 비중이 적어 대기업과의 원가경쟁력 하락에 대한 부담 상승
- 따라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업계는 전체 업체의 15%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이 주로 BMDTP의 혜택을 받을 것을 우려, 국내 원료 생산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수입관세 감면제도(BMDTP) 개요

- 이 제도는 매년 발표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를 돕는 것이 목적이며, 시행 전년도에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부문이 수입관세 혜택을 얻게 될 지를 결정함.
- BMPTD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현지 재무부 규정(248/PMK.011/2014)에 언급했으며 BMDTP의 내용은 각 산업의 실제 요구를 기반으로 해 달라짐. BMDTP 혜택은 인도네시아에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만 부여함.

BMDTP 혜택을 위한 물품 수입 계획의 내용

제5조

- (1) 특정산업 분야의 기업은 BMDTP를 얻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나와 있는 BMDTP를 얻기 위해서 기업은 관세 및 소비세 감독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산업 부문 설립자에 의해 검증 및 승인 된 물품의 수입 계획서
 - b. 세관 및 소비세 면제 발행국의 주요 서비스 담당 국장 본사로부터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 재고 목록을 응용. 그리고/또는 면제를 받는 회사에 대한 반환 그리고/또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환급과 수출 목적으로 다른 물품에 가공, 조립 또는 설치되는 자재
- (3) 제2항 a.에 언급 된 물품의 수입 계획은 적어도 다음의 데이터를 포함해야한다.
 - a. 상품을 수입하기로 한 날짜와 번호
 - b. 예산 시행 체크리스트 수
 - c. 회사명

- d. 납세자 식별 번호
 - e. 주소
 - f. 수입이 있는 세관
 - g. 제품 유형 및 기술, 사양에 대한 설명
 - h. HS 코드
 - i. 상품의 수량/단위
 - j. 예상되는 수입 가격
 - k. 원산지
 - l. 예상되는 정부 부담 수입 관세
 - m. 기업 대표 서명과 이름
- (4)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에 관한 규정 제2항 b.는 추가 관세 및 소비세의 규제
- 사무 총장에 의해 규정한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BMDTP 248/PMK.011/2014에서 발췌

○ 화장품 제조 부분의 정부 차원 우대 비용은 150억 루피아로 화장품 원료 41개 품목에 세율 10%의 수입 관세가 면제돼 화장품 원 료 가격은 기존 1kg당 2000루피아에서 1kg당 1900루피아로 감소할 예정

연번	원료명	상세 설명	HS code
1	Guar Gum	분말 형태	1302.32.00.00
2	Wheat Germ Oil	액상 형태	1515.90.99.00
3	Vegetable waxes(except triglycerides)	칸 데릴라 왁스 종류	1521.10.00.00
4	vas alba/white vaselin	반고체 형태	2712.10.00.00
5	sodium fluoride	분말 형태	2826.19.00.00
6	ACH 303/Achieve L1050	액상 형태	2827.49.00.00
7	Zinc Suifate Heptahydrate	결정 형태	2833.29.90.00
8	Welcompress/Dicafos	분말 형태	2835.25.90.00
9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분말 형태	2835.26.00.00
10	Needless powder	분말 형태	2839.90.00.00

11	Sodium perborate	분말 형태	2840.30.00.00
12	steary alcohol	조각 또는 향정 형태	2905.17.00.00
13	butyl methoxy dibenzoyl methane(BMDB M)	분말 형태	2914.50.00.00
14	mexoryl SX	투명한 액체 형태	2914.70.00.00
15	uninul A plus Granular	입상 분말 형태	2916.39.90.00
16	Purasal S / PF60	액상 형태	2918.11.00.00
17	Potassium Citrate Trihydrate	결정 형태	2918.15.90.00
18	Pentaerythrityl Tetraditbutyl	분말 형태	2918.29.90.00
19	Octyl Methoxy Cinnamate(OMC)	용액 형태	2918.99.00.00
20	Thiethanolamin (TEA)	용액 형태	2922.13.00.00
21	Cremogen with Hazel	-	3301.90.90.00
22	Fragrance	액상 형태	3302.90.00.00
23	Disodium Lauryl Sulfosuccinate	분말 형태	3402.11.99.00
24	Coco Amido propyl Betaine(CAPB)	분말 형태	3402.19.90.00
25	Texapon ASV 70 Special	-	3402.20.91.00
26	Sodium Cocoyl Glycinate	물, 나트륨 염화물 및 코코넛 산 등의 다른 재료와 함께	3402.90.12.00
27	Preparation of Biocides	수분, 펜타, 산화은, Pentetate, Lauric Acid과 함께	3808.99.90.00
28	Linear Alkyl Benzene(LAB)	용액 형태	3817.00.00.00
29	Cetearyl Alcohol	조각 펠렛 형태	3823.70.90.00
30	Mexoryl SBB	용액 형태	3824.90.99.00
31	Preservative A2	과립의 형태/분말 형태	3824.90.99.00
32	Sepicide HB	-	3824.90.99.00
33	Polymer Types Of Polyvinyl Pyrolidone	분말 형태	3905.21.00.00
34	vinylpyrrolidone / Vinyl acetate Copolymer	분산액의 형태	3905.91.10.00
35	Acrylic Acid And Maleic Anhydride Copolymer	용액 형태	3906.90.99.00
36	Simugel NS	고체 분산 체의 형태 이외	3906.90.99.00
37	Silicon	분산 또는 용액	3910.00.20.00
38	Besil DADM 5050E	불순물 및 위상 분리에서 액상 없음	3910.00.20.00
39	Sodium Carboxy methyl Celiulose (SCMC)	과립 형태	3912.31.00.00
40	AvichelPH102 / Flocel 102	과립 형태	3912.39.19.00
41	Spunlace Nonwoven Fabric	25~70g/m² 사이 무게	5603.92.0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화장품 업계 현황

-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5000만 명의 국가로 화장품 업계에 유망한 시장임. 여성 인구 수가 118만 명에 달하는 국가로, 대부분의 화장품 산업이 주로 여성을 소비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및 SNS 발달로 남성들도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임.
-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치는 지난 5년간 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고려, 지난 2년간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15.67% 성장함. 예측 성장률은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2011~2015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 지표

(단위 : 십억 루피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장 규모	8,500	9,760	11,200	12,874	13,943
성장률	-4.49	14.82	14.75	14.95	8.30

자료원: Surbey Bizteka – CCI

-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현지 화장품 업계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화장품 시장의 전체 70%를 다국적 기업이 점유한 상태로, 현지 화장품 회사가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중상류층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를 이용할 때보다 글로벌 브랜드를 이용할 때 자신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 또한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므로 외국 화장품에 대한 고정 수요층이 존재함.



자료원: 2017 GO-JEK Indonesia



자료원: marketeers

□ 현지 화장품 브랜드 동향

-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의 다국적 기업, Unilever, L'Oréal 등의 아시아 지역 공급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 화장품 물량 증가. 아세안 조화 화장품 규제 제도(Arth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따른 화장품 거래가 증가의 원인도 있음.
- 특히 L'Oréal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생산은 전체 37.4 %로 나머지는 ASEAN 국가들에 수출. 태국 33%, 말레이시아 14%, 싱가포르 3.2%로 나머지는 필리핀과 홍콩이 차지

□ 현지 화장품 브랜드 동향

-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의 다국적 기업, Unilever, L'Oréal 등의 아시아 지역 공급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 화장품 물량 증가. 아세안 조화 화장품 규제 제도(Arth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따른 화장품 거래가 증가의 원인도 있음.
- 특히 L'Oréal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생산은 전체 37.4 %로 나머지는 ASEAN 국가들에 수출. 태국 33%, 말레이시아 14%, 싱가포르 3.2%로 나머지는 필리핀과 홍콩이 차지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주요 4개 기업의 연차 재무제표 내용

회사명	2015년 매출 성장률	주요 내용
PT Unilever Indonesia Tbk	5%	홈 케어 및 퍼스널 케어 74% 성장. 회사의 매출 총 이익에서 9억 7,600만 달러 기여.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중 하나
PT Mandom Indonesia Tbk	0.3%	브랜드 게츠비와 픽시의 헤어 케어는 6.2% 성장. 스킨 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이 두 번째로 성장하고 있음. 2014년 약 5,967만 달러에서 2015년 약 6,098만 달러로 2.1% 증가
PT Martina Berto Tbk	3.48%	화장품 매출의 높은 성장보다는 위탁 생산과 허브 관련 의약품이 각각 43.31%, 15.71% 성장
PT Mustika Ratu Tbk	-2%	화장품 매출 성장에 주력. 화장품 매출액이 0.5% 감소. 화장품 매출 감소로 생활용품 판매 증가가 예상됨.

자료원: tirto.id 기사 내용 가공

□ 재무제표 내용에서의 유의점

- PT Unilever Indonesia Tbk, PT Mandom Indonesia Tbk의 경우, 홈 케어, 구강 케어, 헤어 케어, 베이비 케어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인해 화장품 생산량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움.
-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등록된 화장품 회사는 760개사로 그중 8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세부적인 재무 데이터가 부족함. 따라서 위의 4개 기업의 내용만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내 화장품 산업을 완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도네시아 대표 화장품 대기업: Martina Berto(Martha Tilaar Group), Mustika Ratu, Wardah

- Martha Tilaar의 2015년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3.48%와 7%가 성장. 그중 위탁 생산과 허브 관련 의약품의 순 매출액이 각각 43.31%, 15.71% 성장했지만 화장품 매출액은 1.65%대의 성장에 그침.
- Mustika Ratu의 2015년 매출 증가율은 4350억 루피아에서 4280억 루피아로 -2%를 기록. 화장품의 순 매출 역시 0.5% 감소. 그러나 Mustika Ratu는 수출 감소의 원인은 세계 경제 위기라고 주장

Mustika Ratu의 3년간 수출 가치

(단위: 십억 루피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가치	16.3	8.3	2.2

-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2015년 태국과 싱가포르 수출이 각각 3억9000만 달러, 11억7300만 달러로 높은 편. 이는 PT Paragon Technology Innovation의 할랄 화장품 Wardah의 인기때문으로 분석. 현재 Wardah는 중동 시장과 Halal Dari Awal niche market이라는 제목의 할리우드의 틈새시장 진출에 노력 중.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2015년 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약 8억1800만 달러에 달함. 이 수치는 수입액인 약 4억4100만 달러보다 큰 수로,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가 85%에 달함.

-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 화장품의 성장 추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 현지 브랜드의 성장률이 높지 않고 성장에 기여하는 품목이 홈 케어, 퍼스널 케어에 집중돼있기 때문임.
- 현지 화장품 브랜드가 아직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음. 화장품 업계가 원료의 90%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현지 브랜드가 BMDTP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
- 이에 관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부에 화장품 수입 원자재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 화장품 산업의 관세 혜택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허브를 이용한 원료 추출과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예상됨.
- 이번 BMDTP에 관해 현지 화장품 업계에서는 다국적 기업 및 대 인니 수출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산업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매년 개정되는 BMDTP 내용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BMDTP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희소식이지만 국산 원료를 사용 중인 현지 기업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며 현지 화장품 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음. 현지 내수 기업들이 BMDTP에 우호적이지 못한 입장이므로 다각적이고 수시로 변하는 현지 상법에 유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재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 현지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품목별 잠재 바이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아세안 조화 화장품 규제 제도(Arth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자료원: Euromonitor, Indonesia Finance Today(현지 언론), trio.id(현지 언론), pagi(현지 경제 신문), OMNI 세금 컨설턴트,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등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2017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안내

◆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1.25. 일부개정)

◆ 교과목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 항, 개정법령 등	6.0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 한 사항 등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신설)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문서·기록, 제조·수 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 표시 방법 등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	
중국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제도(신설)	중국 화장품 법규, 인허가 제도 등	
제조판매업자 사후 관리(신설)	감시 준비서류, 대응요령 및 사후 관리 주의사항 등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신설)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0.5
화장품 정보 바로 알기(신설)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 방법 등	
교육 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은 평가 제외)	교육 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총 계		6.5

※ 총 11과목 중 4~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함.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차수	교육일정		교육 시간	교육 예상인원	교육장소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정규교육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1차	1월	24일(화)	6.5H	140명	서울여성 플라자 2층 회의실
			2차	2월	21일(화)		140명	
			3차	3월	14일(화)		140명	
			4차	4월	18일(화)		140명	
			5차	5월	16일(화)		140명	
			6차	6월	13일(화)		140명	
			7차	7월	04일(화)		140명	
			8차	8월	29일(화)		140명	
			9차	9월	26일(화)		140명	
			10차	10월	17일(화)		140명	
			11차	10월	24일(화)		140명	
			12차	11월	07일(화)		140명	
			13차	11월	14일(화)		140명	
			14차	11월	21일(화)		140명	
			15차	12월	05일(화)		250명	서울여성 플라자 1층 아트홀 봄
			16차	12월	12일(화)		250명	
			17차	12월	19일(화)		250명	
	지역별 순회교육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광주	4월	28일(금)	6.5H	100명	미정 (추후공지)
			부산	6월	23일(금)		100명	
화장품 제조업 자·제조판매업 자 교육	-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1차	3월	30일(목)	6.0H	20명	대한화장품 협회 9층 회의실
			2차	9월	14일(목)		20명	

※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교육 개최횟수, 일정, 장소 및 인원은 교육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역별 순회교육의 경우, 지리상의 문제로 교육 참여가 불편한 남부지역의 거점지역(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장소는 교육수요에 따라 확정하여 교육개시 30일전에 교육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계획임.

◆ 추진 현황

○ 2017년 미국화장품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총회 참석



우리 협회는 세계 각국 협회와 정보 교류 및 국제 협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와 세계 화장품 산업에서의 주요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2017년 2월 26일(일)부터 3월 1일(수)까지 미국 플로리다, The Breakers 에서 개최된 미국화장품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동 정기총회에는 미국화장품협회 및 아세안, 캐나다, 유럽, 영국, 남미,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스페인 등 세계 20개국 협회 48명 및 약120개 기관 240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각국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3월) 개최 성료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21일(화)/22일(수) 2일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법규 및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국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대 중국 화장품 수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개최하였다.

△ 최근 중국 화장품법규 변화 사항(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실무 및 수출입 통관(중국경영인증컨설팅 김기현 대표) △대중국 수출지원 : 사용한도 및 사용금지 원료 포털(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 및 주의사항(중국 연사) 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3월 21일 64개사, 85명/ 3월 22일 72개사, 103명의 중국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추가로 4월 25일(화), 4월 26일(수)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 및 세미나 등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 kcia.or.kr](http://www.kcia.or.kr)) 교육마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6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대표자 교육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목)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1차)』을 실시하였으며, 총 6개사 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내용은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화장품 안전성, 품질관리기준 포함,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 국내외 화장품 산업현황,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2017년 2월에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광고자문신청 건수는 총 65건이었다. (적합 : 10건, 조건부 적합 : 29건, 부적합 : 26건)
-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Y존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많은 혈관과 림프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피부보다 투과성이 높으며 청결과 정상 범위의 pH 유지가 중요합니다.
 - OOO 속 줄기세포는 놀라운 피부 재생 효과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 속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의 수와 생명을 증가시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외부 유해 환경과 시간에서 오는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 독소물질 제거
 - 피부의 신진대사 촉진, 모공의 단백질 응고 작용, 피지 분비 억제
 - 강력한 비듬 방지 성분 함유
 - 탈모 예방과 모발 복구 테라피
-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2017년 3월에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광고자문신청 건수는 총 108건이었다. (적합 : 9건, 조건부 적합 : 61건, 부적합 : 38건)
-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50년대 독일의 피부과 전문의 크리스틴 슈라멕이 환자들이 박피와 같은 피부 시술 후에 바르도록 개발한 것이 시초이다.
 - 살균 효과로 피부 악순환을 막아주는 지혜로운 커버 쿠션
 - 목 주변의 지방세포 생성을 억제시킴으로 피부탄력을 향상 시켜줍니다.
 - 약 20종의 미네랄과 풍부한 영양이 함유된 사해 소금이 피부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피부 재생을 도우며
 - 피부에 유익한 활성물질 생성을 돕고 항산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 셀 속 수분의 보존력을 높여주고, 셀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명칭 개선안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개정에 따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국제 조화된 안전성 평가에 대비하여 동물복지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검색 등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의 이름을 붙임1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 양식 의거 작성하시어 2017.03.31.(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명칭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명칭 개정안 의견 조사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중국 위생행정허가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korea_ktr/uss/guide/info.j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센터 상시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외국세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고자 "해외통관애로 해소센터"를 첨부파일과 같이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BIO KOREA 2017」개최 안내

보건산업진흥원 및 충청북도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R&D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국내 대표 보건산업기술 거래의 장「BIO 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아래와 같이 개최하려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업체 관계자분들은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아래 -

가. 행 사 명 : BIO KOREA 2017 International Convention

나. 행사기간 : 2017. 4. 12(수) ~ 4.14(금), 3일간

다. 행사장소 : 서울 COEX, 3, 4층 컨퍼런스 룸(3층 및 C, D, E홀)

라. 참가내용

- 컨퍼런스 :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최신 정보를 주체로 하는 19개 주제 세미나
- 비즈니스포럼/미팅 : 국내외 참가기업 및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1:1 매칭 미팅
- 전시회 :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최신 기술 및 제품 및 사업 홍보
- 부대행사
 - 인베스트페어(Invest Fair) : 보건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상담회 등
 - 메드텍페어(MedTeck Fair) : 의료기기산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 피스코리아(PICE Korea) : 국내 拍 외 제약기업간 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확산
 - 잡페어(Job Fair) : 보건산업 전문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마. 참가문의

- 전 화 : 1661-0810(O!BIO)
- 이메일 : biokorea@biokorea.org
- 홈페이지 : www.biokorea.org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기청, KTR)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동 사업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ex)중국위생허가)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주변인프라

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 생선부터 인증,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통인프라

국토의 중심에, 오송이 있습니다

KTX오송역 → 서울 45분

- 전국유일 고속철도 분기역 (경부, 호남)
- 전국 X축 연결 (충청선, 중앙선, 태백선 연계)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 2개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청주IC, 5분 이내)
충부고속도로(서청주IC, 10분 이내)

청주국제공항

- 단지와 20분 거리에 위치
- 37개 도시에 국제선 운항 중인 충북아 핵심공항

평택항

- 70km 내에 위치

인적자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지원

BT

7개 대학, 900여명

충북대학교 재약학과

IT

13개 대학, 2,200여명

청원대학교 연도제공학과

자동차

8개 대학, 800여명

한글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가능인력 양성

한국바이오마스터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안전한 도시

재난재해 없는 첨단업종 최적지

국립완강과학원 평가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

2015년 마일리지

험한 날씨에 가장 안전한 곳은 충북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연락처 :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4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본부, 4개 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임상시험지원센터

시설명	연면적	부처	역할
신약개발지원센터	22,067㎡	미래창조과학부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0,274㎡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5,690㎡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실험동물센터	7,528㎡	보건복지부	동물실험시스템 제공,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보건의료 필수 연구지원시설(3개 시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면적: 12,301㎡
준공일: 2012.12월
역할: 국가단위 인체자원 총괄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연면적: 6,669㎡
준공일: 2013.12월
역할: 신종·변종 병원체 진단 및 백신개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연면적: 9,900㎡
준공일: 2016.10월
역할: 고령질환 줄기세포 수집·보관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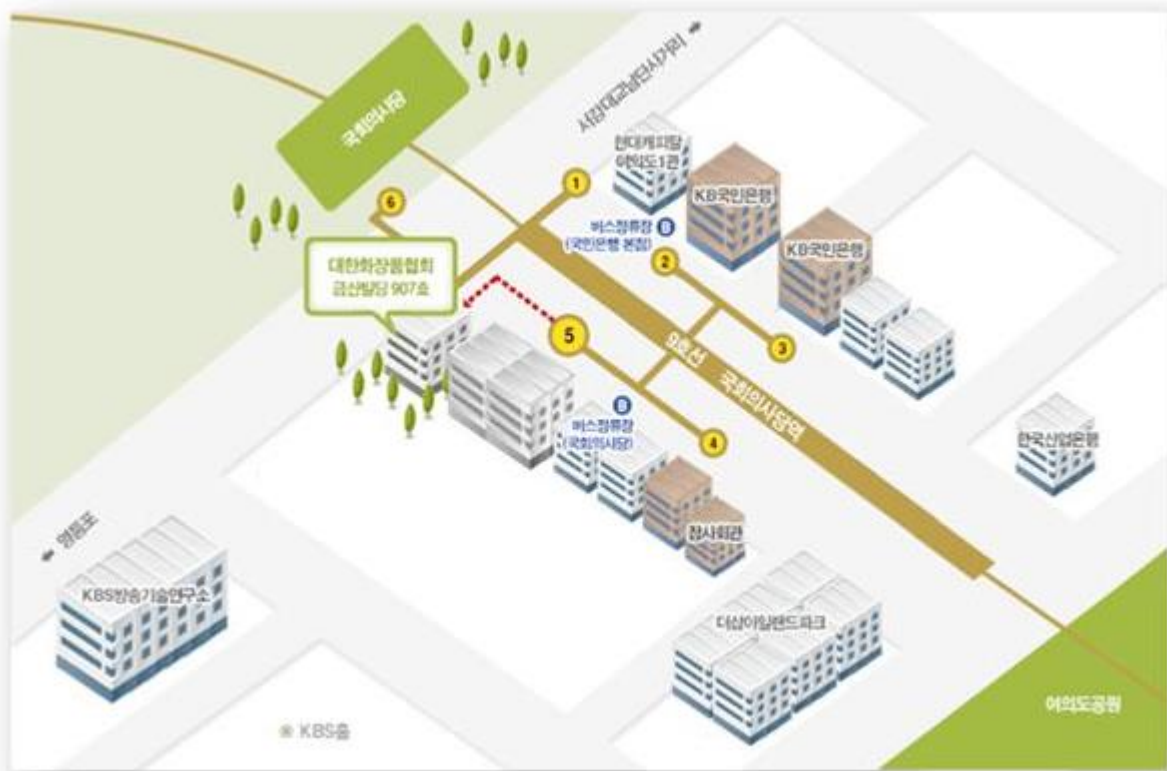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주)LG생활건강	창립 70 주년(1947. 3. 27)
(주)일진코스메틱	창립 55 주년(1962. 4. 1)
제니코스(주)	창립 15 주년(2002. 4. 2)
(주)참존	창립 24 주년(1993. 3. 31)
(주)퓨어코스	창립 11 주년(2006. 4. 1)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